

## 꿈꿨던 그는 인간다운 자였다.

영어영문학과 2012학번 강유진

‘인간다움’은 ‘꿈꾸는 것’이다. 주드의 일생이 너무나 비참하게 끝났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는 꿈꾸는 자였으며 따라서 누구보다도 가장 인간다운 자였다. 주드는 평생을 꿈꾸며 성장했다. 주드의 꿈이 주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었다. 주드는 현실 너머에 있는 것을 향한 강렬한 욕망을 가진 자였으며 현실 너머의 이상을 꿈꾸는 자였다. 주드의 꿈이 더욱 의미가 깊은 이유는 주드의 꿈은 꿈으로만 남은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를 바꾸려는 실천적 꿈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의 삶은 꿈꾸는 과정과 꿈을 향한 실천의 결합체라고 할 수 있다.

이름 없는 주드의 첫 시작은 ‘문자는 죽인다.’이다. 주드가 속해 있는 사회는 문자로 가득한 사회이다. 그는 자신이 속한 사회가 문자로 억눌린 부분들을 알아차리고 이 문자들 너머에 있는 자신의 꿈을 가지기 시작한다. 문자의 억눌림에 대한 깨달음이 그가 현실 너머의 꿈을 가지게 된 동기가 된 것이다. 즉, 주드는 문자를 너머 영혼의 꿈을 추구하는 인물이다.

그는 딸랑이를 팔이 아플 때까지 흔들었다. 그러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새들의 좌절된 욕구에 동정심을 느꼈다. 새들이 자신처럼 그들을 원하지 않는 세계 속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왜 그들을 쫓아버려야 하는가? 그 새들이 유순한 친구와 보호가 필요한 피부양인처럼 보였다. (1-31)

주드는 새들을 보며 새들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 새들의 좌절된 욕구는 주드가 사회 속에서 희생했어야 하는 자신의 욕구와 동일시되며, 새들과 자기 자신은 모두 사회가 원하지 않는 구성원이라고 느낀다. 사회는 문자로 가득했으며 문자로 가득찬 사회 속에서 영혼을 추구하는 자신은 불청객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막연하고 희미하게나마 주드는 사회적 관행에 무엇인가 잘못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 사회적 관행이, 악덕이라고는 할 수 없고 기껏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롭고 순간적인 충동 때문에 잠시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일로 인해서, 여러 해에 걸친 생각과 노력을 포함한 훌륭한 계획을 취소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등 동물보다 더 우수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앞서 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 세대의 일반적 발전에 자신이 이룩한 업적이 기여할 수 있는 몫도 빼앗아 가는 사실을, 그는 막연하고 희미하게 느끼게 되었다. (1-111)

주드는 아라벨라와 자신이 결혼이라는 사회적 관행 아래에 묶여 버린 것이 잘못되었다고 느낀다. 주드는 사회적 관행이 인간이 하등 동물보다 더 우수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앞서 가지 못하게 한다고 표현한다. 주드는 결혼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관행이 인간을 문자 속에 갇혀 버리게 하면서 영혼의 꿈을 꾸지 못하게 가둬 버리는 것이라고 느낀 것이다. 즉, ‘문자는 죽인다.’에서 문자가 뜻하는 것은 사회적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주드는 사회적 관행, 즉 문자의 문제점을 깨닫고 이 문자 너머를 향한 꿈을 꾸기 시작한다.

주드는 영혼이 없는 사회와 관행에 도전하며 문자를 벗어나 영혼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주드는 영혼의 꿈을 꾸며 끊임없이 사회의 편견, 문자와 부딪힌다. 즉, 그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자와 다른 꿈만 꾸는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과의 화해를 실천한다.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해 사회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구를 찾는다. 바로 그 도구가 크라이스트민스터에 있는 대학인 것이다. 따라서 주드는 대학이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곳이며, 자신이 문자로만 남은 도덕 가치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해 주는 곳, 실천적·윤리적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영혼의 꿈으로 가득한 곳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 즉, 주드에게 있어서 대학이라는 공간은 사회의 문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고 영혼의 꿈을 이뤄 줄 수 있는 곳인 것이다.

북쪽으로 뻗은 차가운 백악질 고원 지대의 탄탄한 방벽을 통하여 주드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도시 - 새로운 예루살렘이라고 비유한 환상의 도시-를 항상 지켜보았다. 물론 환상의 도시에 관한 그의 꿈에는 목시록 저자의 꿈에서보다 다이아몬드 상인의 것이 아닌 화가의 것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그에게서 환상의 도시는 구현성과 영원성과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가 지식과 생의 목표 때문에 그토록 존경하는 사람이 실제로 거기 살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보다 사려 깊고, 또 지식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산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1-44)

주드는 크라이스트민스터를 새로운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하면서 크라이스트민스터를 환상화하고 있다. 또한 크라이스트민스터에는 주드의 스승인 필롯슨이 살고 있는데, 필롯슨은 지식과 학문으로 가득차고 대학에 가기 위한 목표를 가진 사람으로서 주드가 동경하며 자신의 미래를 투영시키는 사람이다. 주드는 필롯슨이 자신처럼 영혼의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필롯슨이 있는 크라이스트민스터는 주드에게 학문과 이상의 도시인 것이다.

“제가 말한 곳은 저기 저쪽인데요.” 주드는 크라이스트민스터에 너무 낭만적으로 연연하여 젊은 애인이 숨겨둔 연인에 대해 말을 꺼내듯 도시의 이름을 입에 담으면서는 얼굴까지 붉혔다. 그는 손으로 하늘에 떠오른 빛을 가리켰다. 그러나 나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빛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1-47)

크라이스트민스터는 하늘에 떠오른 빛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주드에게 있어서 환상적인 공간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나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하늘에 떠오른 빛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것인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사회의 문자에 익숙해져 파묻혀 버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다.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크라이스트민스터가 환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단지 메리그린처럼 하나의 도시에 불과한 것이다.

“그곳은 불빛의 도시야.”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거기서는 지식의 나무가 자라지.” 몇 걸음 더 걸어가면서 다시 중얼거렸다.  
“인간의 스승들이 나오고 또 찾아가는 곳이기도 해.”

“학문과 종교로 무장된 성이기도 하지.”  
그는 오랫동안 말없이 가다가 이렇게 덧붙였다.  
“그곳은 나한테 잘 어울릴 거야.” (1-49)

주드는 크라이스트민스터를 불빛의 도시, 지식의 나무가 자라는 곳, 인간의 스승들이 나오고 또 찾아가는 곳, 학문과 종교로 무장된 성이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주드의 표현에서 주드가 크라이스트민스터를 얼마나 환상적인 공간으로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정도는 단지 시작일 뿐이야. 그러나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발전을 할 수 없어. 책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지. 그래서 나는 있는 힘을 모두 쏟아 부어 크라이스트민스터에 정착하는 데 집중해야지. 일단 크라이스트민스터에 들어만 가면 거기서 받을 수 있는 도움으로 엄청난 발전을 할 것이고, 그러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어린아이들의 무지에 지나지 않겠지. 나는 돈을 저금해야 돼. 그래, 저금할 거야. 거기 대학 중 하나가 나에게 문을 활짝 열고 환영할 거야. 지금은 나를 퇴짜 놓겠지만, 이십 년을 기다린다고 해도 환영만 받을 수 있다면.”(1-69~70)

크라이스트민스터와 마찬가지로 대학 또한 주드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포함되는 곳인데 대학이 자신을 환영할 것이라는 주드의 생각 또한 환상적인 것이다. 주드의 일생이 진행될수록 크라이스트민스터와 대학에 대한 주드의 환상은 깨진다.

결국 크라이스트민스터와 그곳의 대학은 주드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거쳐가야 하는 곳이며, 주드의 성장을 위한 곳이다. 즉, 주드에게 있어서 크라이스트민스터와 그곳의 대학은 꿈의 공간인 것이다. 그러나 주드의 생각과는 달리, 크라이스트민스터와 그곳의 대학 또한 사회의 문자 속에 지배된 공간이다. 주드의 생각대로라면 대학은 본래 문자를 바꿔서 새로운 영혼을 담아 사람을 살리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주드가 속한 사회의 대학은 또 다른 문자가 되고 있었다. 대학은 기존의 문자를 강화하는 곳으로 전략해 버렸다.

이들 유령 중 하나는 후에 크라이스트민스터를 ‘상실된 대의의 본거지’라고 (주드는 이 말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애도하고 도시를 향하여 이렇게 읊었다. (1-145)

대학이 꿈의 공간이라는 주드의 생각과는 달리, 크라이스트민스터의 대학은 상실된 대의의 본거지라고 표현되고 있다. 대학이 기존의 문자를 강화하는 곳으로 전략해 버린 것이다.

밤에 보았을 때 완전하고 이상적이던 것이 낮에는 흙투성이 현실로 나타났다. 그는 오래된 건축물에 잔인함과 모독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상처 받은 민감한 인간을 보고 연민을 느끼는 것처럼 몇몇 건물의 상태가 그의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다. (1-151)

주드가 잠에서 깨어 아침에 대학을 다시 보았을 때, 전날과 달리 주드는 대학의 실상을 보았다. 사실 대학은 잔인함과 모독이 가득한 공간이었던 것이다. 이 잔인함과 모독은 대학이 영혼의 꿈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해 주거나 그 영혼의 꿈을 길러 주는 곳이 아니며, 오히려 그들

을 받아들이는 것조차 거부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결국 대학은 사회의 문자 속에 박혀 버린 곳인 것이다.

공통적인 지적 생활을 함께 나누는 행복하고 젊은 동시대인들과 자신은 담 하나를 두고 떨어져 있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일이라고는 읽고 기록하고 배우고 머릿속으로 소화하는 것밖에 없는 사람들과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벽이 얼마나 두꺼운가! (1-155)

“그런 곳은 자네 같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야. 돈이 억수로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지!” (1-202)

주드가 편지를 보낸 대학의 권위자들은 회답을 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청년 주드는 전과 똑같이 전적으로 자기 자신만의 세계에 갇히게 되었으며, 어두워진 전망 때문에 암울함을 더욱 무겁게 느꼈다. (1-205)

눈에 보이는 건물들과 건물의 역사와 특권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중략) 그는 자신의 운명이 이 파노라마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207)

대학이 자신의 꿈을 위한 공간이라는 주드의 생각은 철저히 깨진다. 대학은 가난이라는 이유로 주드에게 들어올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으며 대학의 구성원들과 주드를 철저히 분리시키기까지 한다. 주드는 자신의 가난으로 인해 대학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대학에 들어가서 꿈을 이루겠다는 생각 대신 성직자가 되어 꿈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대학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대학의 자리를 성직자가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대학에 대한 내 꿈이 무너진 것을 조금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학의 꿈이 설사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도 다시 시작하지는 않겠어요. 사회적 성공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요. 성직의 길을 포기하여, 서품 받은 신부가 되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을 몹시 후회하고 있어요.” (1-223)

주드는 대학에 대한 자신의 꿈이 무너짐을 통해 좌절하지 않고 또 다른 새로운 꿈을 추구한다. 주드는 성직자가 되고자하는 꿈을 가지게 되는데 주드가 성직자가 되려는 이유는 단순히 사회적 성공, 세속적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적이며 경쟁적인 인생 대신 성직과 애타적 삶이라는 생각은 새로운 것이었다. 크라이스트민스터의 대학 졸업 시험에서 두 개 전공 분야의 일등을 따지 않고도, 그리고 특별한 학문을 쌓지 않고 보통의 지식으로도, 설교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니! (1-227)

주드가 성직자가 되고자하는 이유가 사회적 성공, 세속적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애타적 삶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드가 추구하는 현실적 너머의 꿈은 애타적 삶을 사는 것이다. 주드는 대학이라는 꿈의 공간을 잃음으로 인해 자신의 또 다른 삶의 목표를 찾게 된 것이다. 잃음이 단순한 잃음이 아니었고, 그 잃음이 또 다른 새로운 꿈을 가져다 준 것이다.

이렇게 비학문적인 방법으로 교회에 발을 들인다는 것은 평생 높은 위치로 올라가지 못하고 기껏 이름 없는 마을이나 도시의 빈민가에서 초라한 보좌 신부로 인생을 보낸다는 것을 뜻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훌륭한 위대함이 들어 있었다. 그것이 참된 종교의 길이며, 회한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 추구할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지옥의 길이기도 했다. (1-228)

주드는 대학에 들어가지 않고 성직자가 되는 것이 사회적 성공을 얻지 못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에는 훌륭함과 위대함이 들어 있으며 참된 종교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주드는 사회적 성공을 얻지 못할지라도 자신이 추구하는 꿈을 사회에 실천하는 실천적 삶이 분명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저것 여러모로 따져보면 자신은 훌륭한 신부가 되기엔 너무나 많은 정열을 사방으로 쏟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의기소침해졌다. 이제 그가 바랄 수 있는 최상의 희망은 자신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육체와 정신 사이의 싸움에서 가끔씩은 전자가 승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이었다. (1-340)

그러나 성직자가 되고자하는 주드의 꿈도 대학에 들어가하고자하는 꿈과 마찬가지로 깨지고 만다. 대학에 들어가하고자하는 꿈이 깨지게 된 이유는 주드의 가난 때문이었지만, 성직자가 되고자 하는 꿈이 깨지게 된 이유는 여자 즉, 주드의 사랑 때문이다. 여기에서 주드가 육체와 정신을 모두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육체 때문에 정신의 꿈이 패배하고 마는 것이다.

새스톤에서 이상한 사실 중 하나는 도시에서 제일 큰 모지가 교회 뒤의 지붕처럼 가파르게 뻗어 올라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도시가 수도원 내부와 일반인의 생활 모두에서 이상하게도 부패의 시기를 겪었다는 점이다. 즉 이것은 도시에서는 교회 마당이 교회 첨탑보다 더 천국에 가까이 위치하고, 그곳에는 맥주가 음료수보다 더 풍부하며, 또 정직한 주부와 처녀보다 부정한 여자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했다. 도시에 대한 또 다른 소문은 중세 이후 주민들은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낼 수가 없을 만큼 가난해서 교회를 부숴버릴 수밖에 없었으며, 드러내놓고 신을 섬기는 일을 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2-11)

성직자가 되고자하는 주드의 꿈이 깨지는 이유가 주드가 육체에 약하다는 것뿐 아니라 대학과 같이 주드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에 대한 환상 때문이기도 했다. 주드의 생각 속에서 종교는 본래 기존 가치 너머 무엇을 추구하며 윤리적 삶 즉, 금욕적 삶을 목표로 삼고 더 나은 나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영혼의 꿈을 추구하는 것인데 종교의 실상은 영혼 같은 것은 찾아볼 수도 없었다. 세금 때문에 신을 섬길 수 없었고 윤리적·금욕적 삶 대신 음란하고 부정한 삶이 종교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러한 종교의 실상 속에서는 그는 그의 꿈이 이뤄질 수가 없다고 느끼고 성직자가 되려는 꿈 또한 버리고 만다.

그가 크라이스트민스터에 처음 가면서 지녔던 신앙은 지금의 그에게는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2-204)

결국 주드는 꿈과 더불어 자신의 신앙조차 잃게 되고 종교에 대해 가지고 있던 꿈마저 잃게

된다.

“다른 곳으로 가서도 별로 큰일을 한 게 없는 것 같네요?”

주드는 그 점에 대하여 별로 이익을 달 수가 없다고 웃으며 대답했다. (2-231)

결국 주드는 크라이스트민스터에서 대학에 가고자했던 꿈도, 성직자가 되고자했던 꿈도 모두 잃고 만다. 주드가 속해 있는 사회는 영혼이라고는 전혀 없고 누구도 성장할 수 없는 사회이다. 성장의 가능성조차 존재하지 않는 사회인 것이다. 주드는 자신이 속한 사회를 영혼의 꿈으로 가득찬 사회로 바꿔 보려고 하지만 결국 사회에 패배하며 꿈을 잃고 만다.

그러나 패배한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고 나의 가난이었습니다. 내가 한 세대 안에 이루려고 했던 것은 대개 두 세대 내지 세 세대가 걸리게 마련입니다. 나의 충동은 -애정은- 결점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 이점이 없는 사나이에겐 방해물이 되지 않기에는 너무나 강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좋은 기회를 잡으려면 물고기처럼 냉혈한 인간이 되고 돼지처럼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2-232)

주드는 사회에 패배한 것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의 가난이라고 말한다. 주드의 꿈의 본질이 사회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주드가 처해 있던 사회적 상황 즉, 가난이 패배했다는 것이다. 주드는 금전적인 부유함이 사회적 이점이라고 표현하는데 자신은 이러한 사회적 이점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가난으로 인해 자신의 꿈을 구현해 보지도 못했다. 사회적 배경에 따라 꿈의 실천 가능성 여부가 결정되는 사회, 얼마나 절망적인 사회인가.

팔구 년 전 내가 처음으로 이곳에 왔을 때 나에게는 확고한 의견이 쓸쓸하게 비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들은 하나씩 하나씩 나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에게는 앞으로 나아갈수록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의 내 생활 법규에서는 나 말고는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오히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상 기쁨을 안겨주는 내 기호를 따르는 것 이외에 달리 할 것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중략) 내 생각에는 우리의 사회적 구도가 어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나보다 더 큰 통찰력을 지닌 사람들에게 의해서 발견되겠지요.” (2-234)

대학에 들어가겠다, 신학자가 되겠다라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던 주드가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확실한 것은 없다고 한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 주는 것 이외의 것에서 주드는 꿈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자신이 꿈을 잃게 된 이유가 사회적 구도에 있다는 것을 주드는 알아차리지만, 그는 자신이 아닌 더 큰 통찰력을 지닌 사람들이 이것을 발견할 거라고 말한다. 이러한 주드의 모습은 초반의 주드의 모습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띤다. 사회의 관행 속에 눌러 버린 주드는 이제 더는 꿈꾸지 않는다. 주드가 속한 사회는 꿈꾸는 성장의 가능성조차 주지 않는 사회임을 알 수 있다.

지상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게 있소? (2-267)

이제 주드는 성장의 가능성조차 주어지지 않는 사회로 인해 영혼이 없는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실천적 삶에의 의지를 완전히 잃고 만다. 주드에게 꿈이란 더 이상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변하고 만다. 사회에 의해 꿈이 좌절되고 이제 아주 소박한 꿈을 가지게 된 것이다. 자신은 현실 너머의 꿈을 이룰 수 없는 한계적 인간임을 깨닫고 사랑이라는 굉장히 일상적인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 주드의 꿈은 현실에 패배하고 만 것이다.

“좋아. 난..... 당신과 결혼을 했으니까. 당신하고 결혼을 해야 한다고 그녀가 말했지. 그래서 금세 실천을 했지. 그게 진짜 종교요! 하-하-하!” (2-337)

이제 주드는 종교에 대한 환상적 생각을 버리고 영혼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종교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만다. 끊임없이 사회의 편견, 문자와 부딪히며 세상과의 화해를 실천하려는 주드는 이제 없다. 주드는 사회의 편견, 문자와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파묻혀 버리고 만다.

“내가 태어난 날을 멀하게 하라. 남자 아이를 잉태하였다 하던 밤도 멀하게 하라.”

“그날이 어둠이 되게 하라. 하느님이 위에서 돌보지 않게 하라. 빛이 그날을 비추지 않게 하라. 그 밤이 적막하게 하라. 거기서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게 하라.”

“어찌하여 나는 태에서 죽지 아니하였는가? 어찌하여 어미에서 나오면서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 그러면 이제는 조용히 누워 쉬고 있을 것이니. 잠들었을 것이니. 그러면 쉬고 있었을 것이니!” (2-337)

결국 주드는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꿈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애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드는 이제 꿈을 가지지 않는다.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모든 꿈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마저 부정한다. 주드에게는 더 이상 성장에 대한 희망이 없다. 그는 세상에 대한 환상이 깨진 채로 죽는다. 영혼이 없는 사회가 영혼을 추구했던 개인을 철저히 망쳐 버렸다.

주드의 일생을 보았을 때, 주드는 상당히 인간다운 자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은 진선미를 추구하는 생물이자 1차적 욕구, 그 이상을 쫓는 생물이다. 인간에게는 충만한 삶이란 무엇일까,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 등의 육체와 상관없는 고민들을 하는 시점이 온다. 이 시점이 바로 인간다움을 발현하는 시점인 것이다. 즉, 꿈꾸는 시점이 인간다움을 발현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주드는 문자라는 현실 너머에 있는 영혼이라는 꿈을 추구했지만, 결국 문자에 패배하고 말았다. 그러나 끝없이 문자와 맞서며 사회 속에서 영혼의 꿈을 실천하고자 했던 그의 실천적 삶에의 의지는 얼마나 강렬했던가. 사회와 타협하지 않고 내면적 성숙을 이뤄갔던 주드의 성장은 그 누구보다 인간다웠던 것이었고 비록 사회라는 한계에 부딪혀 패배했지만 그는 인간다운 삶을 살았다.